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지킬 새 정부 만들겠다”

국민의당 지도부·대권 주자 광주서 첫발 지지율 되찾기 총력

국민의당이 20일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세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이날 광주를 찾아 호남 발전을 약속하며 지지율 호소했다.

이날 당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대표는 “5·18의 광주정신을 우리 국민의당은 이어받겠다. 호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새로 탄생되는 정부는 호남이 주역이 돼야 한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개혁 공동정부를 통해 호남 경제 재건에 기회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경선에 나서는 천정배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 호남의 열정을 깨워 개혁주권을 창출하고 호남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는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당과 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5·18 진실 규명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특별법 제정 ▲도시첨단지방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군공항 이전 ▲무등산 군부대 이전 ▲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 등 시정 현안과 광주 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원 대표는 정책협의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당이 맨 먼저 헬기사격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장병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철저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등 5·18의

5·18묘지 참배·市政협회의 조선대 정상화 관심 촉구

“정운찬·정의화 연대 안되면 내주에는 ‘개문발차’ 할 것”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5·18의 진실이 ‘국가 공인 보고서’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시·도민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대학교 정상화 문제에도 광주시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국민의당도 교육문화위원회 등을 통해 잘 살피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바라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진 박 대표는 “탄핵이 사실상 목전에 다가와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번 주 안까지 (합류)대들이 지어지지 않으면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율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정운찬 전 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물논의에 대해 박 대표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백지상태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최근 광주·전남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디에든 이런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광주와 전남은 한 패키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당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당 지지율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소용돌이가 칠 것이고 혼란과 불안의 시기에 안정감을 주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빛을 발할 것이다”며 “후보들도 비교우위에서 경쟁력이 월등한 만큼 우리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 두번째)가 최근 당에 합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찾아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재판서 공개된 ‘고영태 녹음파일’

고씨 측근 3명 “정부 예산 36억 나눠먹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녹음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고씨 주변의 지인들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눈치채고 고씨에게 건의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서 김씨와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은 2015년 1월 30일 “(정부 사업 예산) 36억

원을 나눠먹자”는 얘기를 나눈다.

이 대화에서 최모씨는 “36억이니까 한 30%만 남겨도 10억 아니야”라고 말한다. 이에 이씨는 “나눠먹어야지, 그걸로 개도 줘 죽고”라고 응수한다.

이씨는 “그렇게 해서 (고영태를) 쟁겨 주면 돼. 개가 잘 잡은 거야. 일단 머리가 있는 놈이야”라고 고씨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고씨를 가리켜 “별 구라고 별구. 알지 너? 별리면 구라, 고 별구 아니냐”라며 고씨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VIP 만족...K스포츠 사업 빨리하라 지시”

고씨 지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K스포츠재단 사업 관련 보고를 받고 만족하며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음에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나”라고 문자 류상영 더불어민주당 부장은 “VIP(대통령을

뜻하는 은어)가 만족하고 있다”며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빨리 하지고 러더라”고 답한다. 이 파일은 지난해 1월 23일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류씨가 고씨 등의 부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관련 일을 한 뒤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와 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블루K가 다이렉트로 돈 받아선 안된다”

이와함께 최순실씨가 SK 측에서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비를 지원받으려 할 때 적당한 명분이 없어 측근들이 대책을 논의한 과정도 공개됐다.

‘고영태 녹음파일’에 따르면 고영태씨의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박현영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해 2월 29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박씨는 “회장님(최순실) 생각은 독일로 이제 돈을 좀 따로 빼고 싶어하는 부

분이 좀 있는 건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SK에서는 그 회사(비데)에 대한 레퍼런스도 없고,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라고 말했다.

박씨는 “영태형도, 영태형은 아는 건데, 거기 다 아는 건데...”하면서 “회장님이 사실 저렇게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더블루K에서 다이렉트로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받는 거는 안 된다. 재단에 어떻게든 받아서 뭐를 하는 방식이 돼야지”라고 걱정했다.

박지원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은 그 자체가 역사...보존 노력”

국민의당 지도부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방문,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 지리는 보존돼야 한다. 그 자체가 역사”라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옛 전남도청 별관인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찾아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부상자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옛 도청 원형보존을

요구하는 광주시민이 167일째 천막 농성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단체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나 국회 차원의 5·18진실규명보고서 채택,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의 5·18 기념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재단이 올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5·18기념행

사 성사와 국회 ‘5월 결상’ 설치, 재단이 개발한 5·18교재 학교 보급에 힘써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는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최소한 민주정의인권 세력이 집권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깊이 새겨 꼭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회답했다.

장성민 전 국회의원 입당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자신의 이

름을 내건 방송에서 북한군 침투설을 운운하며 광주에 상주 임한 사람이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당헌·당규대로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광주정신에 모욕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시일 내에 결론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씨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

공개된 파일에서 고씨는 “중요한 것도 하나 오더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이라며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영태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금 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고씨는 “아는 사람

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라”라고 답한다. 고씨가 “세관 쪽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라고 하니 김씨는 “있겠조. 찾아보면 나오겠조”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이어 고씨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조직, 이 세관조직이 OO(비속어) 탄탄한 데라고...”라며 “그걸 깨려 하는데, 깰만한 그쪽(행정고시) 기수들 말고 반대파들 끼여야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한다. /연합뉴스

HANA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지

HAWAII

Aloha~ 하와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지상낙원 하와이로 떠나는 여행!

<p>하나Free HHA204_A 항공 + 호텔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6/7일</p> <p>총 상품가격 1,602,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없음</p> <p>3월 3일~6월 30일 매주 목,금,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p> <p>하와이 최대 규모 리조트형 호텔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에서 투숙하는 자유일정 상품으로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여행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p>	<p>하나Pack 캐주얼 HHP214 인솔자 동반 일급 와이키키 리조트 6일</p> <p>총 상품가격 2,357,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60 선택경비 있음</p> <p>3월 1일~4월 21일 매주 화,수,목,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p>	<p>하나허니문 캐주얼 HHW200 관광 + 자유 준특급 하얏트 플레이스 6/7/8일</p> <p>총 상품가격 2,047,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5월 1일~9월 30일 매주 토,일,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p>
--	---	--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패키지 예약자 : 매직 칵테일 쇼 포함 (US\$ 75 상당)
허니문 예약자 : 스타 오브 호놀룰루 섀넬 디너 크루즈
1STAR 티켓 증정 (30만원 상당)

제공조건 : 예약일 2월 13일 ~ 3월 9일까지 선착순 100명 한정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기금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비] 내역은 일일료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따라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료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여행업이 번성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 출발 2일 전 / 출발 2일 전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원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여행 유요 2.여행 자재 3.철수 권고 4.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